

[목포권]

무안군 蓮 재배 확대 싸고 논란

무안군이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연(蓮) 재배면적 확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 A영농조합은 일로에 있는 파군과 저수지와 죽산제 14㏊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5년간 임대해 연 재배에 나섰으며 무안군도 종근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작물로 연을 재배할 경우 퇴비 사용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郡 “신활력사업 일환 저수지 임대·종근 구입비 지원”

주민들 “저수지 기능 마비 불러 친환경농 포기할 판”

주민들은 “관광목적이 아닌 물을 사용이 불가피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저수지 임대에 퇴비 사용으로 수질이 오염된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무안군과 해당업체가 주민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밀어붙여 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수질이 깊어 연 재배에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낭비에 해당된다며 구상권 청구 등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저수지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촌공사 소관으로 수질이 오염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해당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 36㏊인 연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100㏊로 늘릴 계획이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진도군 통합 브랜드 슬로건 공모합니다”

6월말까지 접수

진도군이 지역 이미지 홍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진도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성장 가능성을 구호 형태의 짧은 한글 또는 영어 문구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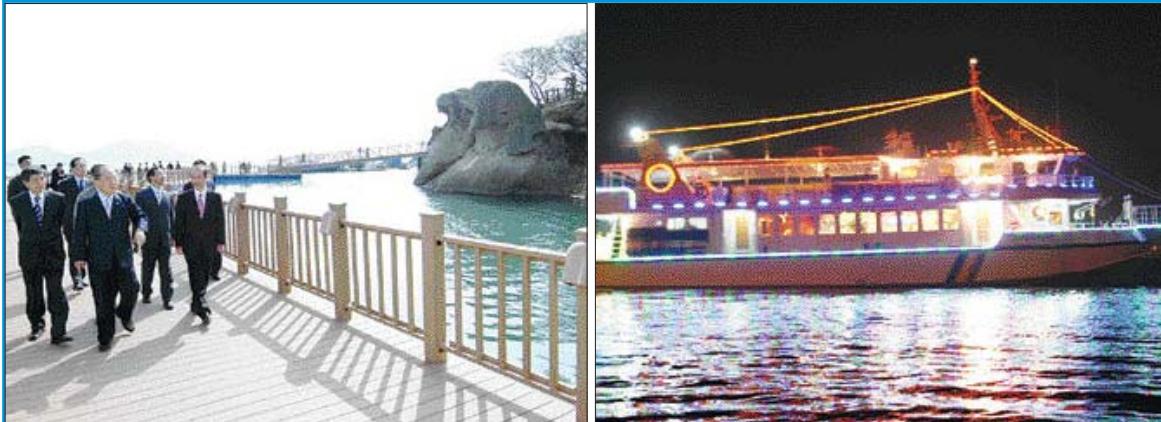
우편이나 군 홈페이지 ‘진도군 브랜드슬로건 공모’ 배너 접속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점으로 한정되며, 이미 등록됐거나 주진 중인 슬로건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최우수 당선작에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 50만원과 3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 (061-540-3108)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비단바람을 맞으며 갓바위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해상보행교(사진 왼쪽)와 평화광장 선착장을 출발해 1시간 동안 영산호까지 운행하는 아간 유람선이 목포의 새로운 관광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야간 유람선·해상 보행교…목포 새 명물로

해상보행교와 야간유람선이 목포 관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물로 등장했다.

해상보행교는 비단바람을 맞으며 갓바위 일대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길이 298m, 너비 3.6~4.6m 규모로 설치돼 10일 개통됐다.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된 해상 보행교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갓바위의 황홀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빛의 도시’ 목포의 야간 경관을 해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야간 유람선도 이날 취항했다.

야간 유람선은 ‘스타마리너호’(196t, 정원 203명)로 레스토랑, 노래방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선내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 유람선은 평화광장(갓바위) 선착장을 출발해 문화예술회관~ 삼학도~여객선터미널~대동(신안비치호텔)~목포해양대학교~고하도(용머리)~대불항~영산호를 도는 1시간 코스로 운행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내달 무안서 茶聖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

10~11일 삼향면 왕산리 탄생지 일대

음악회·‘현다 의식’ 등 체험행사 다채

조선 후기 다성(茶聖)으로 주양 받고 있는 초의선사 탄생 제 222주년을 기념하는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의선사 탄생 제 222주년을 기념해 222명이 본인만

미나가 열리며 둘째 날에는 초의선사 현다 의식, 차 역사박물관 개관식, 향토음식 경연대회, ‘초의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또 부대행사로 행사장 주변에서 떡차·차음식이 전시되고 차기나무 심기, 초의차 제다법, 초의선사 서화 탁본체험, 찻잔빚기 등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목포 여성취업센터 운영

목포시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목포시는 시비 2천만원을 들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목포시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지난 7일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교통 질서 지키기

홍보용 꽃씨 배부

신안군과 목포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범국민적 교통·기초질서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용 꽃씨 2만1천포를 배부하고 있다.

꽃씨는 봄선화, 채송화, 코스모스 등 10여 종으로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장소와 관내 읍·면사무소, 과출소, 군청 민원실에서 배부되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전북 등 규모화 사업·팽목 연안항 개발 등

진도 내년 해양수산사업 1,463억원 확정

내년도 진도군 해양수산사업 예산이 1천463억원으로 확정됐다.

진도군은 최근 군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사업 51건 등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복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기업화·규모화 사업 13건 698억원 ▲팽목 연안항 개발사업 200억원 ▲해조류 맞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30건 301억원 ▲

살기 좋은 어촌복지시설 조성 80억원 등이다.

또 전국 전복 종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진도 참전복

육성을 위해 참전복 양식 특산단지와 진주전복 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이밖에 열악한 어촌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 등 수산 기반시설과 낙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20억원 및 140t 차도선 건조 비용 등도 신청됐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전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를 수시 방문해 신청 사업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서부권